

오늘의 유머

■개와 고양이의 대화
부정축제로 큰 부자가 된 집에 사는 개와 닭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닭아! 요즘 넌 아침이 되도 울지도 않더라?”
“자명종이 있는데 내가 울 필요가 없잖아.”
“그렇구나.”
“그런데 개 너는 왜 도둑이 들어와도 짖지 않니?”
그러자 개가 심드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둑이 집안에 있는데 내가 짖긴 왜 짖냐?”
■애는 왜?
한 꼬마가 임신한 옆집 아줌마를 만났다. 꼬마가 불쾌한 배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줌마 배가 왜 볼랐어요?”
아줌마가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 안에는 예쁜 우리 아기가 들어있어서 그렇단다.”
그러자 꼬마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어쩌다 애를 먹었대요?”
■커플의 실랑이
사킨 지 얼마 안된 커플이 있었다.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던 남자는 오늘 밤 키스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걸기 시작했다.
여자의 집앞에 도착하자 남자가 여자를 벽으로 밀친 후 말했다.
“오늘은 키스해 주기 전에 못 들어가.”
“안돼, 집에 아빠랑 엄마 다 계신단 말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한 번만 하자.”
“아이~ 안 된다 말야.”
그렇게 여자의 집앞에서 30분 넘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 대문이 열렸다. 그리고 여자의 동생이 나오며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안니! 아빠가 그냥 한 번 해주고 빨리 보내래!”
그리고 동생은 남자를 향해 힐끔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리고 아저씨! 우리집 인터넷에서 손 좀 빼주시겠어요?”

■커플의 실랑이
사킨 지 얼마 안된 커플이 있었다.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던 남자는 오늘 밤 키스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걸기 시작했다.
여자의 집앞에 도착하자 남자가 여자를 벽으로 밀친 후 말했다.
“오늘은 키스해 주기 전에 못 들어가.”
“안돼, 집에 아빠랑 엄마 다 계신단 말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한 번만 하자.”
“아이~ 안 된다 말야.”
그렇게 여자의 집앞에서 30분 넘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 대문이 열렸다. 그리고 여자의 동생이 나오며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안니! 아빠가 그냥 한 번 해주고 빨리 보내래!”
그리고 동생은 남자를 향해 힐끔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리고 아저씨! 우리집 인터넷에서 손 좀 빼주시겠어요?”

■커플의 실랑이
사킨 지 얼마 안된 커플이 있었다.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던 남자는 오늘 밤 키스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걸기 시작했다.
여자의 집앞에 도착하자 남자가 여자를 벽으로 밀친 후 말했다.
“오늘은 키스해 주기 전에 못 들어가.”
“안돼, 집에 아빠랑 엄마 다 계신단 말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한 번만 하자.”
“아이~ 안 된다 말야.”
그렇게 여자의 집앞에서 30분 넘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집 대문이 열렸다. 그리고 여자의 동생이 나오며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안니! 아빠가 그냥 한 번 해주고 빨리 보내래!”
그리고 동생은 남자를 향해 힐끔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리고 아저씨! 우리집 인터넷에서 손 좀 빼주시겠어요?”

시끌벅적 e-스타



천기누설, 재벌 2세와 결혼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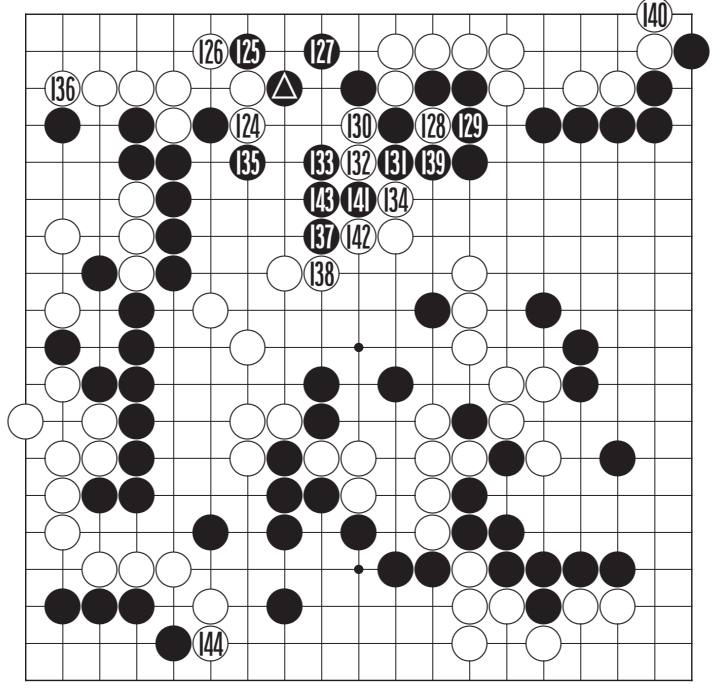
뽕하고 뽕한 드라마 스토리 중 하나.
재벌 2세와 가난하지만 당찬 여자의 러브스토리다.
결말은 언제나 해피엔딩이다.
드라마 속 재벌 2세와의 러브 스토리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포털사이트 다음에 '천기누설, 재벌 2세와 결혼하는 법'이라는 동영상상이 등장해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동영상은 드라마 속에서 재벌 2세와 결혼하는 법을 배워보며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방법은 길거리편, 난이도는 별 5개 중 하나다.
일단 대기업을 건물 앞에 쓰러지자.
건물에서 나오던 재벌 2세가 쓰러진 당신을 발견해 부축해주면 갑자기 깨어나 깜짝 놀란채 한다.
그리고 뽕을 때리면 된다.
명함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나면 재벌 2세가 반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 가정부편.
이번에는 난이도가 좀 높아져서 별 3개급이다.
먼저 재벌 2세 집 가

정부로 취직해야 한다.
재벌 2세가 막말을 하면 발끈하면서 뽕을 때린다.
재벌 2세 “날 때린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라는 멘트와 함께 사랑에 빠진다.
가정부편 두 번째 버전도 있다.
재벌 2세가 막말을 하며 이리저리 부러 먹을 때 앞선 방법처럼 뽕을 때린다.
이때 당신은 해고를 당하게 되지만 안심해도 좋다.
재벌 2세는 당신이 끊인 커피 맛을 잊지 못해 당신을 다시 고용할 것이다.
물론 주의사항도 있다.
폭력행사로 고소될 수도 있다는 것.
별 5개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방법은 직장인편이다.
문 뒤나 모퉁이에서 재벌 2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부딪혀 쓰러진다.
재벌 2세가 미안하다고 돈을 주면 뽕을 때린다.
당신의 강한 모습에 재벌 2세는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해고’라는 부작용은 조심해야한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제17회 光日盃 광주 전남 지역비대위

소득없는 외출타기

개인전 결승전 9보(124~144)
白 박광주 5단 黑 김영수 5단 (포스코) (전남교사회)



흑 ▲로 붙여 맹렬히 흔들어대고 있지만
위나 백이 단단하여 큰 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장면이다.
김영수 5단은 125, 127로 최대한 버티고
있고 넉넉한 부자가 된 박광주 5단은 행여
라도 불상사가 생길새라 128로 끊어 살려
만 달라고 소박한 요구를 해 온다.
그러나
김영수 5단의 입장은 이판사판이다.
일단
129에 이어 곱게는 쳐줄 수 없다는 태도
다.
백 130으로 끊겨 대책이 없는가 했으나
여기에서 김영수 5단은 또 흑 133이라는 교
묘한 수를 발견하여 외출타기처럼 극적으로

연결에 성공한다.
흑 135가 선수여서 일단은 기분좋은 곳이다.
보통 때라면 이런 수가 결정타가 되었겠지만 좋은 수를 두고도 지금은 갈수록 변수가 사라져서 좋은 기분이 아니다.
백 138로는 139에 두어 흑 두 점을 때려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그러나 많이 앞서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복잡해지는 것은 상대가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138로 받아주고 140으로 살아 둔 것이다.
백 144로 하변에 막은 수가 '이겼습니다'라는 승리선언과도 같은 수다.
(오규철 9단·본보 비특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5일(음 8월 26일 戊辰)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and their daily fortune. Signs include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Table with 4 columns for language learning: 1. How's your job? (English), 2. この内容(ないよう)がよくわかりませんか. (Japanese), 3. 里边有什么? (Chinese), 4. 先公後私(선공후사) (Korean).